

2020년 12월 27일 “교회 – 종교와 신앙의 경계선에서”(벧전 1:6-9)

교회 생활은 종교활동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의 행위가 되려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희생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피해간다면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이 두 중요한 기독교 영성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8 절,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일반적으로 회개란 잘못된 것을 뉘우칠 때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주님을 향해 나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영어로 turn around 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어도 어떤 정황 속에서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나의 행위를 재정비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면 하루에 수십번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로 희생은 내가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사랑하면 희생은 값진 긍정의 행위가 됩니다. 희생이란 내 안의 좋은 에너지를 분출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수고하고, 나누는 것 등, 자기 시간과 노력을 쏟지만 결국 나에게 내적 즐거움과 긍지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희생은 우리 삶에 진정한 활력을 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인식되어 있는 세속 개념에 붙들려서 회개와 희생을 가급적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종교적 모습이 있지만 참 신앙으로는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 예수님의 자비와 판단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긴 책은 2-3 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전하는 서신입니다(**계 1:4**). 당시 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순수성이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마다 잘 한 것과 잘못 한 것이 다르게 나타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약속 받은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에베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서머나), 감추었던 만나와 새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리라(버가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두아디라), 흰 옷을 입을 것이다(사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써주겠다(빌라델비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라오디게아)

이 말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알기 쉽게 축약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원래 품은 하늘의 정체성과 본질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때 아담과 동행하며 주시려 했던 모든 축복을 교회에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성경의 이 말씀은 마음에 쉽게 와 닿지 않을 지 모릅니다. 성경의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곁돌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그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현대교회에 참으로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과 정죄는 완벽하게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의 깊은 축복의 세계를 향하도록 서로에게 회개를 격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역사적 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연장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십자가는 내 삶의 상징이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희생을 설교하면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아직은 내가 희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놀리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세요. 회개와 희생이 압박 아래 실행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종교적 가식이 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와 희생을 배우려 하되 주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종교적 활동은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끝난다면 종교를 안 갖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회개와 희생에 대한 배움을 성경 말씀을 통해 꾸준히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참 신앙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당신은 교회에서 회개와 희생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들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희생을 다시 정리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2. 회개와 희생은 어떻게 참 신앙의 축복의 길이 될까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묵상해 보십시오.